

겸손함과 성실함의 글쓰기

김 창 현*

지난 학기 나는 글쓰기 교과목의 하나인 〈인문학 글쓰기〉를 수강했다. 이 수업을 듣는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공감했던 결론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글쓰기는 억압이다.’ 기본적으로 글쓰기는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고, 나의 글이 남에게 올바로 이해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글을 쓸 때는 논리와 문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독자의 신분이나 지식수준까지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 역시도 글 쓰는 사람의 몫이다. 글쓰기 수업 내내 우리 모두는 이 문제를 비롯해서 각자의 텍스트와 주제를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 매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요, 억압이었다.

나에게도 글쓰기는 고행길이었다. 특히 이 수업에서 요구하는 글은 ‘성장’에 대한 원고지 80매 분량의 논문이었다. 논문이라는 글쓰기 형태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나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논문 하나를 완성하는 과정이 대학 생활에 의미 있는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수강을 결심했었다. 한 학기 동안의 글쓰기 경험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글쓰기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나는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겸손함’을 꼽고 싶다. ‘겸손함’이라는 덕목은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요청되는 덕목이지만, 특히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필요하다. ‘내가 최고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은 반대로 ‘무엇을 더 채워야 할까’라는 질문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채웠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 글쓰기에서 겸손함을 견지하는 것은 도덕적인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겸손함은 글을 잘 쓰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글을 쓸 때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자신의 문제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과거에 나는 못된 습관이 하나 있었다. 내 글을 퇴고하기 위해서 수백 번 읽고 또 읽지만, 타인의 글은 대충 읽는 습관이었다. 이러한 습관 때문에 나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재학 중

는 기준에 내가 사용하던 문장에 더 많이 구애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자면, 논술 준비를 하던 고등학교 시절, 나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빈번하게 사용했다.

1. 이러한 문제는 xx의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이러한 문제는 결국 xx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1번 문장은 서두의, 2번 문장은 결론의 단골손님 이었다. 모든 문제의 답안에서 나는 위의 두 문장을 사용했다. 이런 나의 습관은 ‘남의 글을 보지 않고도, 스스로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다’는 스스로의 오만함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다른 사람들의 글에서 이 두 문장이 들어갈 자리에 어떠한 문장이 있는지 자세히 관찰했다면 내가 쓸 수 있는 문장의 형태가 더 많아졌을 것이다.

타인의 생각과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역시 ‘내 생각이 가장 훌륭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많이 거칠수록 글이 편향된 시각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성장’을 주제로 글을 쓰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은 참고 서적 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였다고 생각한다. ‘성장의 의미’라는 만만치 않은 문제에 대해 글을 쓰기 위해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성장이 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다소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이 때 누군가 “성장은 발전이다”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생활 방식

이 있으므로 성장은 발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생각들을 바탕으로 나는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이라는 주제를 고민해 볼 수 있었다. 만약 나의 독단적인 판단에 근거해 글을 썼다면, 내 글이 ‘성장은 무엇이다’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겸손함은 보다 명료한 글을 쓰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쓸 때, 명료한 언어로 그것을 표현 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지식과 이해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글쓰기를 힘들게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만 한다”는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말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표현하고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서 명료한 어휘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나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인지 글을 쓸 때 지나치게 추상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예로 대학교 1학년 때, ‘문학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글을 쓴 경험을 꼽을 수 있다. 그 글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는 상당히 냉정했는데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했다. 돌이켜보면 비록 그 수업의 과제가 ‘문학과 철학’에 관한 것이었는데,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내가 ‘문학과 철학’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완벽하게 체화(體化)해 내는 것은 무리였다. 당시의 나는 문학과 철학, 모두에 대해서 거의 공부한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학도 모

르고, 철학도 모르는 학생이 ‘문학과 철학’에 대해서 글을 쓴다는 것은 분명히 무리였다.

지난 학기에 ‘성장’에 관하여 글을 쓸 때는 예전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비교적 좁은 범위의 주제를 선택했다. 수많은 ‘성장’의 의미 중에서도 내가 전에 보았던 세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성장의 모습으로 주제를 한정했다. 덕분에 나는 이전의 글보다는 더 정리된 생각으로 글을 쓸 수 있었다. 광범위한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해서, 그 글이 좁은 범위를 다루는 글보다 훌륭하다고 단정할 수는 결코 없다. 넓은 범위를 다루는 글일수록 자칫 잘못하면 글이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글 쓴이는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항상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글을 쓸 때, ‘겸손함’에 못지않게 ‘성실함’ 또한 중요하다. 아무리 명필가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 술술 글을 써내려갈 수는 없는 일이다. “작가 조정래는 소설을 발로 쓴다”는 말을 들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 등장하는 구수한 사투리와 놀라운 리얼리티는 작가의 머릿속에 잠재된 어떤 능력의 발현이라기보다, 수많은 현장 조사와 인터뷰가 만들어 낸 것이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쩌면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조합해 낼 수 있는 사람’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

성실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글을 쓸 때, 종종 타인의 글을 인용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글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다른 글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단연, 많은 서적을 읽어보고 열심히 사전 조사를 한 사람일수록 적절한 인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인용을 할 때 서지 사항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도 필요하다. 타인이 작성한 소중한 글을 인용하면서, 서지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것은 표절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글 쓰는 과정 내부에 숨어 있는 수고스러움이 더해질수록 글이 더욱 정교해지고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이나 플래시, 동영상과 같은 영상물이 글보다 훌륭한 의사소통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글을 접하면서 살고 있다. 요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공개한다. 과거의 어느 시대에도 이처럼 공평하게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적은 없었다. 누구나 글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시대에서 ‘좋은 글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은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앞으로 글을 쓸 때 ‘겸손함’ ‘성실함’과 더불어 좋은 글에 필요한 요건을 더 많이 고민해 볼 생각이다. 글쓰기에는 다독(多讀)과 다작(多作) 이외에는 왕도가 없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글쓰기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에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열려 있는 것이 아닐까. Ⓜ